다산 유배지 강진 四宜齊 관광 명소로

〈사의재〉

복원 한달만에 가족 탐방객 5천명 돌파

토속음식 판매, 문화 해설 곁들여 인기

강진군 문화해설사들이 '현대판 주모'로 변신, 최근 복원된 사의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유적을 설명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남도 답사 첫 출발은 사의재 주막에서 부터"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 당시 기거했던 강진 사의재(四宜齋·네 가지를 올바로 하는 이가 기거하는 집)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사의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01년 천주교 박해사건인 황사영 백서사건으로 18년간 강진 유배생활 기간 중 처음 4년간 거처했던 주막으로 지난 10월 25일 강진읍 동성리에 복원이 완료됐다.

다산은 이곳에서 경세유표(經世遺表)와 애절양(哀絶陽)을 집필했으며 황 상 등 여섯 제자를 교육시키기도 했다.

사의재에는 평일 100여 명, 주말 200~300여 명 등 가족단위 탐방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으며 복원 한달만인 지난달 26일 현재 탐방객 5천명을 돌파했다.

특히 사의재에는 문화유산 해설사를 겸한 현대판 '주모'들이 독특한 남도의 토속적인 음식(추어탕, 칼국수, 동동주, 야생수제차)을 판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의재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문화 해설사는 모두 7명으로 이중 5명이 여자다. 이들은 다산과 관련된 역사를 해설할 뿐 아니라 당시 200여년전 조선시대 주모처럼 음식상을 차려내 관람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은 명함에도 '주모 ○○○'라고 적었다.

문화해설사로 활동중인 고순덕(46)씨는 "다산이 일반 서민들과 접하면서 실학사상의 깊이가 더해졌을 것"이라며 "새로운 견학 목록이 하나 추가된 만큼 언제든지 찾아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곳을 방문한 선한순(48·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씨는 "주말을 맞아 중·고등학생 두 자녀와 함께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강진을 찾았다"면서 "다산 선생의 숨결도 느낄 수 있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맛깔스런 주막집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의미를 더했다"고 말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아시아권 고인돌 조명

화순서 국제 심포지엄

아시아의 거석문화와 고인돌을 집중 조명하는 '제 2회 아시아권 문화유산 고인돌 국제심포지엄'이 6일부터 8일까지 화순군 도곡온천 스파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소장 이영문) 주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고고학 관련 국내외 학자 40여 명이 참석해 인도와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거석문화와 고인돌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심포지엄 첫날인 6일에는 화순 고인돌 유적과 운주사, 쌍봉사 답사가 이뤄지며 7일 개회식과 함께 '아시아 거석문화와 고인돌'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어진다.

또 8일에는 '한국 청동기시대 묘제와 고인돌'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마량항 싱싱한 문어 위판 강진 마량항 수협위판장이 갓 잡아올린 싱싱한 생선 판매로 활기를 띠고 있다. 마량항에서는 감성돔과 농어 등 자연산 활어는 물론 제철을 맞은 굴과 문어, 낙지가 많이 잡히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서남권 대규모 오리 가공공장 준공

영암 덕진면에 50억 들여

연 15만t 생산 설비 가동

영암군 덕진면에 대규모 오리고기 가공시설이 준공돼 5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전남 서남부지역에 대규모 오리 가공공장이 준공됐다.

덕신유통(대표 양성현·64)은 5일 50억원을 들여 영암군 덕진면에 오리 훈제와 생육 등 연간 15만t 규모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가동을 시작했다.

덕신유통은 앞으로 육골즙과 주물럭 등 부위별 포장이 가능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 식품업체나 체인점에 납품할 계획이다.

또 오리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자체 푸드 체인점도 개설하는 등 전국적인 오리고기 전문업체로 발전을 꾀하고 있다.

대규모 오리고기 가공 공장 가동으로 전남 서남부 지역 농가들이 사육한 오리 고기를 위생적으로 가공할 수 있게 돼 농가소득 증대와 1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광산경찰, 민원실 안내 도우미 배치 서비스 향상

광주 광산경찰서(서장 하태옥)가 최근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종합민원실 시설물을 정비하고 안내 도우미를 배치했다.

광산 경찰은 종합민원실 내 안내시설이 눈에 띄지 않고 대기 장소가 협소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광산경찰은 이에따라 민원인 눈높이에 맞도록 안내표찰을 정비 하는 등 '고객중심'의 민원실로 탈바꿈시켰다. 또 민원 서류 작성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 도우미도 배치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原電갈등' 영광주민들 大選투표 거부 움직임

범군민대책위 항의 집회도

영광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터빈 가동 후 배출되는 물) 문제로 원전과 갈등을 빚고 있는 어민들이 대선 투표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광원전온배수피해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7·18일 서울 삼성동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앞에서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항의 집회를 열고 집단으로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뒤 대선 투표를 거부하기로 했다.

범대위는 한수원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받지 않고 바닷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투표 거부는 이에대한 항의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0월25일 영광군은 1년 기한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원전측에 어민들의 동의서가 포함된 12개 항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원전 측에 어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보도록 중재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로 입장이 달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전 측은 "변경 허가로 어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기존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줬고 앞으로 어민들과 보상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원전 가동 뒤 인근 어민들은 온배수로 피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해 왔으며 원전은 1년 마다 조건부 허가를 받아 바닷물을 사용해왔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8개 시·군 공동 브랜드 '순한 한우' 최우수상

농림부 축산물 품질 평가

무이자 12억 지원 받기도

전남 동부권 8개 시·군의 공동 한우 브랜드인 '순한 한우'가 2007년도 농림부 주관 축산물 브랜드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또 함평군의 '함평천지 한우'는 우수상에 선정됐다.

'순한 한우'는 브랜드 수준(품질 균일성, 고품질, 물량공급 능력, 위생 안전성)과 사업 실적(달성률, 성장률) 등 전 부문에 걸쳐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순한 한우'는 농림부장관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무이자 자금 12억 원을, 우수상인 '함평천지 한우'는 농협중앙회장 상장과 6억 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전남 동부권 8개 시·군이 참여해 2003년 출범한 '순한 한우'는 2004년부터 지방비 10억 원과 축산발전기금 융자금 246억 원을 집중 투입해 육성한 결과 전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2006~2007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3년 연속 소비자시민모임 주관 '우수 축산물브랜드'인증을 받았다.

/박치경기자 unipark@